

美전역에 禁煙열기 擴散

회사·機關·단체들 속속 대열에 參與

美전역으로 금연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기관·단체들이 속속 금연 또는 흡연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뷰로 오브 내셔널 어페어스 조사에 따르면 미국기업체의 약35%가 흡연을 제한(2%는 전면금연)하고 있으며 20%가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타임지 최신호는 전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흡연규제가 회사자체의 결정이 아닌 州또는 市の 조례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17개주와 수백개 지방행정청이 사무실 기타 작업장에서의 흡연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

흡연자들은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주위의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위협한다는 美공중위생국장의 보고서가 지난해 발표된 후 많은 기업체들이 담배연기 없는 근로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뉴잉글랜드 텔리폰사는 사원여론조사 결과 27,000명중 70%가 비흡연자임이 밝혀지자 엄격한 흡연제한조치를 결정, 카페테리아의 한쪽, 일부 휴게실 및 복도만을 흡연구역으로 허용했다.

이스트먼 코닥社 같은데는 사원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흡연규제여부를 결정하지만 간부들이나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이문제가 결정되는 곳도 많다.

조지아주의 통조림 식품업체인 프로

스티 에이커스 브랜드에서는 하루 두갑씩 담배를 피워대는 사장 때문에 전면 금연조치는 어렵지만 그래도 비흡연자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는 루이스 델 사장의 배려도 간부회의식상에서는 흡연이 금지되고 각급부서의 사무실 별로 흡연제한을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어떤 회사에서는 흡연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심지어는 해고당할까 전전긍긍하는 사원들도 있다.

채용자격에 비흡연조건을 집어넣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워싱턴주 레드먼드의 뱅가드 알렉트로닉 톨스사는 입사지망자의 면접 제1항으로 「담배를 피우십니까」라고 물어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면접을 끝내버린다.

어떤 기업주도 인종·종교·결혼여부에 따라 피고용인을 차별할 수 없다는 연방법도 있지만 직장에서의 흡연자차별을 항거하는 애연가 보다는 은근히 이러한 흡연규제를 환영하는 흡연자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세계「금연의 날」 제정 WHO, 5월 7일

WHO는 지난 연차총회에서 금년도 5월 7일을 세계 금연의 날로 제정했다.

이번 「금연의 날」은 날로 증가하는 흡연인구의 감소와 범세계적인 건강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정된 것이다.